“레바논서 국군장병 마음 돌보겠다”

균재 스님, 비구니 최초 파병
10년 군종법사 전환점 되새김
파병장병 신앙 활동 · 상담 전담
“부대원들 마음 평안 위해 노력”

김가령 기자 gugoose66@hyunbul.com



비구니 최초 국제평화지원단 파병 군승 균재 스님이 파병지에 가져갈 기념수건을 들고 밝게 웃고 있다.

“파병 장병의 마음을 돌보고 부처님 법을 전하는 데 온 역량을 다 하겠습니다.”

육군 역사상 두 번째 여군 군종법사인 균재 스님(육군대위)이 8월 20일 국방부 호국 원광사 군종특별교구(교구장 법원 스님)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레바논 파병 각오를 밝혔다.

비구니 군승으로는 최초로 해외 파병에 나서는 균재 스님은 국제평화지원단의 레바논 동명부대 30진으로 파병을 간다. 균재 스님은 총 280명의 파병 인원 중 유일한 군종장교로 오는 9월 2일부터 8개월간 군종법사로 활약한다.

균재 스님은 2015년 군종법사로 임관하고 10년째에 이르러 파병에 지원했다. 스님은 “외지나 타국에 다녀오는 것은 부담이라고 생각해 파병에 용기가 없었는데, 파병을 다녀온 정은해 군종목사가 부대원 심리상담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며 적극 추천해서 마음이 달라졌다”며 “군종법사 10년 차로서 새로운 전환점으로 삼고 승려로서 수행도 돌아보고자 파병에 지원했다”고 말했다.

스님이 속한 동명부대는 레바논에서 대민 의료지원, 현지 주민 생활 지원 등의 활동을 한다. 스님은 현지에서 국군 장병들과 24시간 동안 같이 생활하며 부대원들의 스트레스 관리와 신앙 활동, 심리 상담을 전담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2개월간 육군종합행정학교에서 심리상담 교육을, 육군사관학교에서 스트레스 완화 기법 교육을 받았다. 스님은 “다년간의 군종법사 경험을 통해 출신지, 병과, 종교가 다양한 부대원들 사이에 스며들 것”이라며 “스님으로서 불교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부대원들이 마음의 편안함을 느끼게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스님이 레바논에 가져가는 짐만 1.6톤이다. 모두 파병 현지에서 280명의 부대원와 나눌 물품과 식품들이다. 법회를 위한 설법대, 방석 등을 비롯한 장병들이 먹을 국수, 라면, 고추장, 약재, 과자 등으로 구성됐다. 물품은 군종특별교구 교구장스님과 육해공군의 지원 등으로 마련됐다. 또한 스님은 위문품으로 수건과 단체 티셔츠 300여 장을 제작해 함께 선물한다.

균재 스님은 “많은 관심과 응원에 힘입어 파병에서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건강하게 복귀해 좋은 소식 전하겠다”고 다짐했다.

균재 스님은 2001년 서울 봉정암에서 지웅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어린이와 청소년 대상 법회 지도법사를 맡다가 2014년 명법 스님과 인연으로 군종법사에 지원하게 됐다.

한편, 군종특별교구는 8월 19일 국제평화지원단 내 호국 흑룡사에서 레바논 동명부대 30진 파병 환송기념 교구장 법원 스님 초청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자리에서는 기념수건과 간식으로 구성된 위문품 250세트가 부대원들에게 전달됐다.

‘사찰림연구소’ 설립…사찰림 관리 본격화

10월 22일 출범식 및 심포지엄
조계종 종령기구 전문기관 도약



사찰림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가치 증진을 위한 ‘조계종 사찰림연구소’가 출범한다.

조계종 사회부(사회부장 도심 스님)는 8월 20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종회분과회의실에서 ‘전국 교구본사 사회국장단 회의’를 열고 사찰수행 환경·종교차별·국제교류 등 각종 현안을 공유하며 이와같이 밝혔다.〈사진〉

사회부는 이 자리에서 불교계 유일한 사찰림 전문 연구기관 ‘조계종 사찰림연구소’의 출범식 및 심포지엄이 10월 22일 개최됨을 알렸다. 조계종 사찰림연구소는 2009년 ‘한국사찰림연구소’로 설립돼 산림청의 인가를 받아 사찰림의 관리·보존을 위해 활동해 왔다. 이후 지난해 11월 종무회의를 거쳐 올해 2월 조계종 산하 종령기구가 됐다.

사찰림은 사찰 일원에 속한 사유림이지만 현행 법령에 의해 공공자산으로 구분돼 사찰의 자율적인 활용이 불가능하다. 자연공원에 속한 사찰림의 나무를 베고자 할 경우 국가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타 사유림과 다른 규제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조계종 사찰림연구소는 정책 연구와 대응책 개발 등을 통해 사찰림의 권익 보호와 발전에 앞장선다.

사회부는 “종령기구가 된 조계종 사찰림연구소는 본격적으로 사찰림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가치 증진이 가능한 전문연구기관으로 도약하고자 한다”며 “출범식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이 나오면 전국 교구본사에 다시 한번 알려드릴 테니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란다”고 요청했다.

조계종 사찰림연구소는 △전통사찰 산림 실태조사 △사찰림해설사 양성 △사찰림 생태문화 교육 △사찰림 포럼 등의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불교환경정책수립 및 정책 안내 △환경위원회·국제교류위원회 활동 보고 △종교차별 대응 사례 공유 △외국인스님 초청 및 체류 출입국 안내 △교구별 주요 현안 공유 등의 안건들이 다뤄졌다. 김가령 기자

“무종교인 포교, 경험 중심 메시지가 효과적”

김두식 동국대 커뮤니케이션연구소 연구원

‘새로운 불교 포교 방법론의 모색’
결과 발표…“사회 메시지 유용”



무종교인을 대상으로 한 포교 활동에서는 사회적 유용성을 강조한 메시지와 일반인의 경험을 중심으로 한 접근이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김두식 동국대 커뮤니케이션연구소 연구원〈사진〉은 8월 19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조계종 포교원과 동국대가 개최한 ‘종교 커뮤니케이션과 불교 포교’ 특별 학술세미나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새로운 불교 포교 방법론의 모색’을 주제로 발제한 김 연구원은 2024년 2월 1일부터 20일까지 ‘사람들이 불교 메시지를 어떻게 수용하고 처리하는지’에 대해 조사한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는 ‘개인적 불교 메시지’ ‘사회적 불교 메시지’ ‘전문가 정보원’ ‘일반인 정보원’ 등 4개 그룹으로 나눠 각 그룹 130명씩, 총 52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설문지는 불교 본질에 관한 태도, 불교 행위에 대한 태도, 중립 메시지 처리 성향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불교 메시지 내용의 유형에 따른 설득 효과는 불교 본질에 관한 태도 변화에 유의한 차이가 드러난다. 사회적 메시지 집단은 긍정적인 태도 변화를 보인 반면, 개인적 메시지 집단은 부정적인 변화를 보인다는 것이다. 이는 불교가 기존 기복 불교로만 인식됐던 상황에서, 사회적 메시지가 개인적 메시지보다 더 큰 호소력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무종교인 집단에서는 개인적 메시지가 부정적 태도 변화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원 유형(일반인·전문가)에서 살펴보면 불교신자와 타종교신자에게는 전문가의 메시지가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했다. 불교신자 집단에서는 남성보다 여성이, 학력이 낮을수록,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사회적 계층이 높을수록 전문가일 때 불교 본질에 대한 태도의 긍적적 변화가 크게 나타났다. 전문가의 권위와 신뢰성이 불교신자들에게 신앙심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무종교인에게는 일반인의 경험담이나 일상적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포교에 효과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무종교인들이 일반인의 메시지에 더 큰 동일시를 느끼며, 불교의 사회적 유용성이 강조된 메시지가 긍정적 태도 변화를 유도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무종교인을 대상으로 하는 포교는 불교의 사회적 메시지와 일반인의 경험담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 김 연구원의 설명이다.

김 연구원은 “본 연구는 불교 포교 전략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종교적 배경, 메시지 유형, 정보원 유형을 고려한 맞춤형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한다”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불교 포교 전략을 다변화하고 현대적 접근 방안을 모색하면서 불교의 사회적 호소력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불교 관련 기본 데이터를 생성하는 기관의 설립 △불교 커뮤니케이션의 학제적 연구 강화 △연구와 교육, 데이터 생성 등 다양한 분야의 발전을 위한 종단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역설했다. 김내영 기자

현대불교신문 사장 후보추천을 위한 공모

다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창간 30주년을 맞아 재도약하는
현대불교신문을 이끌어갈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최고 경영자를 모십니다.

- 공모 직위 : 사장
- 임　　기 : 3년
- 자격 요건
  - 경영자로서 자질과 능력을 갖추고 경영혁신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자
  - 불교언론사로서 정론직필하며, 세상과 소통 공감하는 양질의 콘텐츠를 발굴하도록 식견과 덕망이 풍부한 자
  - 국제 감각과 뉴미디어를 포함한 미래 지향적 비전을 가진 자
- 제출 서류
  - 이력서 1부 (사진 첨부, 서명 날인)
  - 자기소개서 1부 (경력 및 업적 중심, A4용지 4매 내외)
  - 경영계획서 1부 (후보자 본인의 의사를 기초로 작성해야 함, A4용지 6매 내외)
  - 이력서에 기재한 학사 이상 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및 관련 자격증 사본 각 1부
- 제출 기간 등
  - 제출 기간 : 8월 21일(수)부터 9월 4일(수)까지
  - 제출 방법 및 제출처 :
    – 등기우편 (부산시 영도구 함지로 79길 23-26 현대불교 부산지사)
    – 이메일 (wiseway3@hanmail.net)
  - * 응모 접수는 제출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 심사 방법
  - 서류심사 :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평가
  - 면접 심사 (필요 시)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해 면접 실시
- 기　　타
  -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추천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모는 본인 이외에 추천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현대불교신문사(02-2004-82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현대불교신문사

대한불교조계종 삼각산 도선사 중창조사 청담대종사 존상 훼손 및 신조성에 대한 입장

거룩하신 삼보님께 귀의하오며,
청담 대종사님의 직계제자와 재가제자들은 청담대종사의 존상 훼손 등 일련의 사태에 대해 발로 참회하며 이 글을 올립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 땅에 도래한 지 1700여 년, 불교는 겨레의 운명과 함께하며 고난 가운데 의지처가 되어주었고 삶 속에 스며들어 민족문화를 꽃피웠습니다. 조선시대에 이르러 불교 탄압이 거세지더니 급기야 일제강점기하에서 불교는 그 정체성과 문화가 말살되다시피 하였습니다. 선사(先師)들은 독립운동의 대열에 함께 하며 한국불교의 정체성을 지키고자 정진하였고, 해방이 되어서는 왜색 불교를 척결하고자 생사를 초월한 정화불사를 단행한바 그 중심에 계셨던 분이 바로 청담 대종사이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청담 대종사께서는 대한불교조계종의 성립에 주춧돌을 놓으신 분입니다. 정화불사와 더불어 불경의 한글화를 기반으로 포교의 현대화를 추진하였으며, 불교신문을 창간하고 도제 양성에 힘쓰는 한편, 군승제도 도입, 신도회 조직, 부처님오신날 공휴일 제정 등을 이뤄냄으로써 불교중흥의 토대를 닦으셨습니다.

청담 대종사님은 도선사 문중을 넘어 근현대 한국불교의 큰 스승이셨으며 능히 중창조사의 역할을 감당하심으로써 한국불교 현대화의 중심이셨습니다. 이러한 대종사님의 업적을 기리고자 1974년 청담문도회는 스님의 법향이 서린 도선사 도량에 사리탑과 존상을 봉안하였습니다. 이는 청담스님의 광대무변한 업적을 후대에 면면케 하고 큰 지남이 되도록 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근자 현 주지 태원 스님이 청담 대종사의 존상 재건립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문중과 상의 없이 존상을 철거하여 지방으로 옮기면서 훼손이 됐으니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주지 태원 스님은 존상이 낡고 훼손되어 다시 조성해야 한다고 직계제자 스님들에게 상의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문중 스님들을 대상으로 사리탑 주변 성역화에 대한 설명에 그쳤을 뿐 공론의 장에서 존상의 철거와 새로운 조성계획에 대해서는 거론이 한 바 없습니다. 만일 존상을 새로 조성하는 안이 거론되었다면 직계제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반대했을 것입니다.

이후 주지는 손자 상좌들과 회의를 한 후 존상을 경북 고령의 석재공장으로 이운하였습니다. 이에 직계제자들이 “왜 상의도 없이 존상을 내려보내느냐?”고 항의하자 태원 스님측은 지난 8월 12일에 직계제자 몇 스님들을 고령의 석재상으로 불러 내렸습니다. 그 현장에서 태원 스님측은 존상을 새로 조성하려는 당위성을 주장했으나 일말의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이에 직계제자들은
첫 째, 새로운 존상 조성에 대한 공론의 장에서 설명과 논의가 없었다.
둘 째, 문도회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하였다.
셋 째, 주지는 일방적으로 존상을 경북 고령의 석재상으로 이운하였다.
넷 째, 청담 대종사의 존상 이전 과정에서 훼손되었다.
다섯째, 주지는 직계제자들을 고령으로 오라고 하여 마치 손상좌들과 대립하는 모양을 조장했다.

이상의 다섯 가지 이유로 직계제자들은 현장에서 도선사 주지에게 대종사의 존상을 원래 위치로 다시 모실 것을 요구하는 등 질책을 하였습니다.

도선사 주지는 청담 대종사님 사리탑 성역화 불사에 대해 칭찬받아 마땅하고 그 노고를 위로하나 진행에 현저한 문제가 발생하였기에 다음 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첫 째, 기존 청담대종사님의 존상을 원래 위치로 이운해서 전문가의 진단을 받고, 그 결과를 문중에 보고 및 논의 후 진행해야 한다.
둘 째, 현 청담대종사님의 사리탑 주변 성역화 불사는 존상의 이전과 훼손에 따른 파행으로 정상적인 진행이 어려우니 존상 문제가 종결 시까지 잠정 중단해야 한다.
셋 째, 주지는 존상의 임의 이전과 훼손에 대한 일련의 사태에 발로 참회할 것이며, 책임을 지는 행보를 해야 한다.

50년이 지난 청담 대종사의 존상은 조성 당시의 불심과 성원이 배어 있을 뿐 아니라 오랜 세월을 지나오며 문화재적 가치마저 더해져 있었습니다. 그동안 청담 대종사의 존상을 참배한 불자들도 참담한 심정이라 합니다. 청담 대종사의 존상을 부득이 새롭게 조성하고자 한다면 진단을 한 후 가칭 「청담대종사 존상 신조성 위원회」를 구성하고 설계 경기 등 공정하고 여법한 과정을 통해 진행되어야 하며, 청담 문도는 물론 종단의 의견도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현 청담 대종사 존상 문제가 속히 해결되어서 도선사가 본래의 서원을 다하고 대종사의 유지가 널리 선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와같이 되도록 청담 문중의 후손 제자들은 진심을 다해 정진할 것입니다. 저희가 도선사 문제를 대외에 공개하는 것은 청담 대종사는 한국의 근현대 불교사를 향도하신 큰 스님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사례가 재발돼서는 안 된다는 경종의 의미도 있습니다. 저희 직계제자와 재가제자들은 거듭해서 제방의 스님과 재가불자님들께 특히 청담 대종사를 추모하는 여러분께 사죄와 더불어 참회합니다. 청담 대종사의 존상이 여법하게 장엄되도록 함께 기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무 불·법·승

청담대종사 직계제자·재가제자 일동 합장